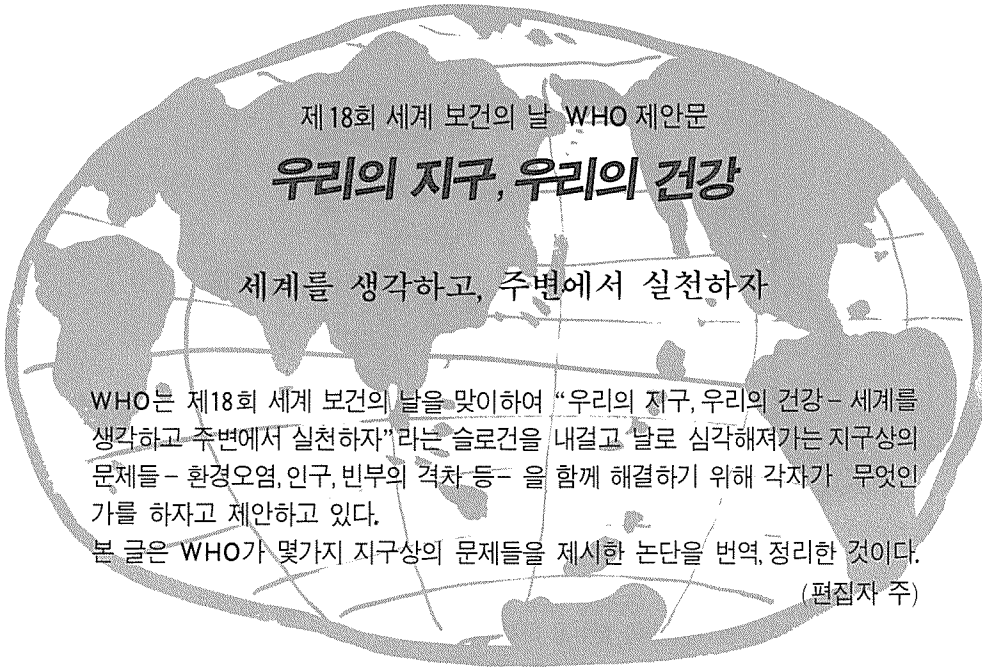


제 18회 세계 보건의 날 WHO 제안문

우리의 지구, 우리의 건강

세계를 생각하고, 주변에서 실천하자

WHO는 제18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지구, 우리의 건강 – 세계를 생각하고 주변에서 실천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구상의 문제들 – 환경오염, 인구, 빈부의 격차 등 – 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무엇인가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본 글은 WHO가 몇가지 지구상의 문제들을 제시한 논단을 번역,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포위된 도시

가난한 시골사람들이 도시로 몰려 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지만 20세기에 있어서의 독특한 현상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그 규모나 속도가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 엄청나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자들의 예견력 부족, 각종 자원의 부족은 이 도시유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987년 WHO가 내린 세계도시, 농촌 상황에 관한 결론에 따르면 1억 이상의 인구가 집을 갖고 있지 못하며, 10억 이상이 적절한 주거시설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맨주먹으로 도시에 올라와서 최소한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그들의 집은 홍수, 지진, 태풍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으며 이들의 "오두막집"은 건축가의 청사진에도 경제기획가들의 예산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을뿐 아니라, 전혀 예기치 않은 환경과 보건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 인구 팽창은 인구이동 외에 계속되는 높은 출산율과 가족계획 부재에도 연유한다.

과거, 대가족제에서는 아이들이 노년을 대비한 투자였지만, 냉엄한 슬럼경제학은 "먹여 살릴 인구가 너무 많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버려진다"는 게임의 규칙을 따를 수 밖에 없다. 현재 라틴아메리카와 카르브해 연안에서는 4천여

만명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추산된다.

자기 집이 있다고 해도, 결코 바람직한 정도는 아니다. 불결한 위생상태, 불결한 식수(이것 조차도 없는 곳이 있지만), 과밀, 사생활 노출, 쓰레기 방치, 질병보균 인자의 만연은 소위 빈민가에서는 일상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공공보건 혜택, 학교, 정비된 도로, 대중교통, 안전한 식수, 상하수도, 전기, 정기적 오물수거 조차도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가는 도시빈민에게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그렇다면 가진 자들은 과연 살만 한가? 인간의 생활 양식을 바꾸어 놓은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의 하나인 자동차의 증가는 대기오염, 소음공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러시아워의 교통혼잡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기오염에 톡톡히 일조하고 있다.

습기찬 날의 도시의 광화학 스모그 현상은 이제 당연한 것이다. 보건당국이 "이럴 때는 실내에 머무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이다.

시당국은 이러한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도심에 있는 유적물을 보존하기가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산성비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과 습기를 만나 화학반응을 거쳐 지상에 떨어지는 산성비가, 돌을 부식시킬 정도라면 인간에게는 얼마나 해로울까?

그렇다고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밀라노시를 들 수 있다. 이 시는 "적절한 계획과 시 당국의 강력한 조처"에 의해 이룩할 수있는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돌을 부식시킬 정도인 산성비. 인간에겐 얼마나 해로울까!

하루 150만 인구와 함께 75만여대의 자동차가 이 도시를 통과하면서 대기오염, 교통체증, 교통사고, 소음공해를 일으킨다.

교통체증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잘 운영되는 대중교통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밀라노시의 교통수단은 버스, 무궤도전차, 기차, 지하철 등이다. 승객들은 실제 가격의 1/3도 안되는 단 한장의 티켓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대책이 있겠는가.

밀라노가 "건강한 도시"로써의 교통망을 갖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건강한 도시 계획"은 이미 4년전 WHO 유럽지부에 의해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으며, WHO 동지중해지부의 몇몇 국가들은 현재 이 계획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건강한 도시계획"을
실천함으로써, 밀라노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 계획의 실현은 적극적 보건정책의 수립, 정치적 결단과 함께 관계 당국의 노력, 대중의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세계 대도시의 앞날이 꼭 암울한 것만을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정치적 의지와 공동체(지역사회)의 동기 부여가 있기만 하다면 이 지구상의 대기오염, 교통문제와 더불어 환경오염의 역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주변의 산업화 경향도 환경의 질적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화학 물질오염과 독성 폐기물의 처리가 산업 공해의 2가지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생활은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물질들은 현대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약 8만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것들은 약 200만 종류의 상품으로 활용된다. 매년 수십만 종의 신제품이 시장에 선을 보이지만 이중 제대로 독성평가를 받는 것은 몇백 종에 불과하다.

환경에 이로운 물질과 처리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개발도상국이 자연보호를 위한 "녹색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개발과 생태계의 보존 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 이것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벗어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보여주는 또다른 예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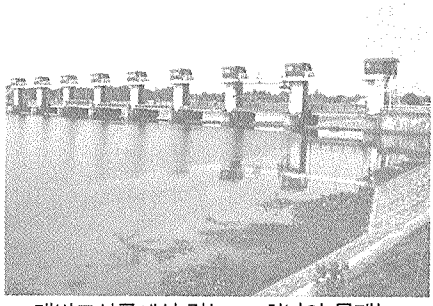
□ 농촌지역의 환경 보건

농촌의 생활양식은 아직까지도 생계를 위한 경작과 연관되어 있다. 땅에 의지해서 사는 농민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비를 주관하는 신의 손에 달려 있다. 때때로-주기적으로-겪어야 하는 가뭄은 배고픔과 영양실조를 가져다 준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겪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물"이다. 아프리카 여자들은 가정용 물을 얻는데 하루 평균 2시간을 소비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콜레라에서부터 설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질병에 매일매일 생명을 건 도박을 해야 할 만큼 그 물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사람들의 문화인식, 특히 보건위생 전문가에겐 잘못으로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이 지방특유의 관습-예를 들어 물을 끓여 먹지 않는 것 등-일 경우의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만 구습을 타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겪는 또 하나의 문제는 비위생적인 "물"이다.

놀랍게도 매년 5백만명 정도의 어린이가 설사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이 불안전한 물과 불결한 위생상태에 연유하고 있다.

공기오염은 과도한 산업화의 결과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면 전 세계의 4~5억 농촌인구가 그들의 초가집에서 공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3세계에 있어 과도한 연료사용에 의한 실내공기오염은 식수문제, 위생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환경보건 과제이다. 적당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바이오매스 연소의 화학적 부산물은 치명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외로 해로운 작용을 하고 있다.

양자의 관계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내 공기 오염과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음 4가지의 주요 보건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즉,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폐암, 특히 어린이에게 있어서의 급성 호흡기 감염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먼지나 땔감에서 나오는 연기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있으며, 결핵, 만성 폐질환은 제3세계 농민을 계속적으로 위협하는 생존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부담이다.

농촌의 문맹률이 도시에 비해 높다는 것은 농민들의 농약 오·남용에서 잘 나타난다. 사용설명서를 읽는다는 것은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통계학자들이 "불의의 중독"이라고 이름붙인 사고의 실제 수치를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20세기의 도정에서, 눈부신 기술 진보와 과학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생활의 원천을 땅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세계의 농촌 인구가 어느 정도이건 간에 그들은 발언권을 갖지 못한 사회 주변인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농촌에 대한 의료인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0만 거주자당 단 2명의 의사만 있는 나라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농민들은 진실로 바라고 있다. 도시에 있는, 소위 특권층을 위한 고가 장비가 갖추어진 커다란 병원 보다는 못하더라도, 마을 공동체를 위한 약간의 보건지식과 최소한의 일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규모의 병원만이라고 있기를…….

"세계보건기구의 건강관리정책에 있어 우선하는 것은 바로 의사가 내리는 지시인 것이다!"

〈역자 : 김명종〉